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11世祖 正郎公 諱：智謙(휘:지겸) 墓碣銘



▷정랑공 묘소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묘표석

우리 沈氏는 고려때 문림랑위위시승(諱 洪孚)으로 부터 비로소 青松을 본관으로 삼았다.

문림랑공(文林郎公)은 함문지후공(諱 淵)을 낳고, 지후공(祗侯公)은 전리정랑을 역임하고,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에 추봉된 휘 용(諱 龍)을 낳았다. 청화부원군은 청성백 휘 덕부(靑城伯 諱 德符)을 낳으니 청성백은 고려말엽의 공훈으로 靑城郡忠義伯의 칭호를 받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공훈이 으뜸으로 기록되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으며, 1399년(定宗元年) 좌정승에 제수되고 定安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정안공은 안효공(諱 濼)을 낳으니 공은 世宗大王의 장인으로서 영의정에 제수되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의 봉호와 安孝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안효공은 공숙공 휘 회(恭肅公 諱 澮)을 낳으니 공은 영의정에 오르고 청송부원군에 봉군되고 공숙공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공숙공은 관관공(諱 潑)을 낳으니 공은 내자시 판관을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이어 좌찬성의 증직을 받으셨다. 관관공은 사인공(諱 順門)을 낳으니 공은 의정부사인 벼슬을 하고 영의정에 증직되셨다. 사인공은 충혜공

휘 연원(忠惠公 諱 連源)을 낳으니, 공은 영의정을 역임하고 충혜공이란 시호를 받고 明宗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니 이분이 정랑공의 조부이다.

正郎公의 부친 휘는 강(綱)이며 明宗의 장인으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를 역임하고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군 되었으며 영의정에 증직되고 익효공(翼孝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익효공의 아들은 여덟 분인데 정랑공은 넷째분으로 1540년(中宗 庚子) 1월26일에 탄생하고 1568년 무진(戊辰) 1월 9일 향년 29세로 별세하니 2월에 연천(구 마전) 定安公 묘소와 같은 기슭에 축좌로 배위 함안이씨(咸安李氏)와 더불어 쌍분으로 장례 모셨다.

정랑공은 천성이 영민하고 민첩하여 용모가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장성하여서는 경서와 역사에 통달하였다. 또한 서예에도 능하였으나 자신의 글씨를 걸어둔 것을 보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이니 겸양지심이 이러하였다.

과거공부에 열중하여 이로써 진로를 삼고자 하였는바 모든 사람들이 공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불

행하게도 일찍이 아버이를 여의고 애통이 극진한 나머지 그 연유로 시묘 살이 하던 중에 마침내 별세하니 이는 비록 성인의 제례는 아니나 출천지효를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슬프고도 애통하다 그 누가 공을 존경하지 않으며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공의 명성은 당연히 백세를 지나도 인멸되지 않아야 한다. 배위는 함안이씨로서 경력벼슬을 한 이세(李霽)의 따님이며 함안군 이세응(李世應)의 손녀이다. 생년은 실전이고 9월 5일에 탄생하여 1562년(壬戌) 3월 3일에 별세하니 묘소는 공과 쌍분이다. 후취부인은 양주허씨(陽川許氏)로서 생년은 실전이고 8월21일 탄생하여 1622년(壬戌) 2월 16일 별세하니 연천 선영 청릉제일강에 간좌로 장례를 지냈으며 소생은 없다

초취배위 李氏에게서 1남이 있으니 교관공 휘 경(諱 憬)이다. 교관공은 성균관 동몽교관을 역임하였는데 광해군 때 유배지 함성(咸城)에서 별세하셨다.

교관공은 4남을 두었는데 長男 휘 정인(諱 廷寅)은 진사시에 급제하고 통례원 인의(引儀)벼슬에 오르고 다음 휘 정량(諱 廷亮)은 의금부도사를 지내고 다음 휘 정홍(諱 廷弘)은 진사로 장수찰방을 역임하였으며 다음 휘 정희(諱 廷熙)는 선교랑의 예우를 받으셨다. 장자의 아들은 휘 설(諱 槁)은 진사로 형조좌랑을 지내고 차자의 아들은 휘 식(諱 植)이며 次子의 아들은 휘 집(諱 集). 낙(樂). 채(采)이고, 차자의 아들은 절(楨). 향(杭) 규(楸)는 무과선전관이며 휘 윤(枕). 요(橈)이다. 그밖에 나머지는 기록하지 못한다.

공의 후손들이 공의 묘갈을 오래 동안 세우지 못한 것을 깊이 애통한 일로 여기고 뜻을 모아 돌을 다듬어 놓고 나에게 비문을 요청하니 나는 문장에 능하지 못함을 말했으나 요청이 더욱 간절하니 어찌 방조의 후손들을 괘시 할 수 있으리오 대략 줄거리만 추려서 이에 기록한다.

방손 載克 삼가 지음
< 끝 >

公 告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開催

二〇〇七年度 安孝公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二〇〇七年六月十九日(화요일)
十時 端午節祀奉行
同日 十一時 總會開催

◇場所：水原市 靈通區 二儀洞 四〇一 번지
安孝公墓前 齋室

◎附議案件◎

- 一 · 二〇〇六年度 會務報告
 - 二 · 二〇〇六年度 決算報告案 審議 承認의件
 - 三 · 二〇〇七年度 利益剩餘金 處分案 承認의件
 - 四 · 二〇〇七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審議 承認의件
 - 五 · 宗土處分 取得 訴訟 遂行 等 議決權 委任案 承認의件
 - 六 · 其他 議決事項
- 西紀二〇〇七年 五月 日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문의처：(031)2531860

※ 個別通知를 省略하오니 인근 門中과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로 오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표창패와 공로패 수여식

2007년 4월 19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대총회 업무추진 내용과 결산자료를 심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고 2007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유공 중회와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爲先사업에 출선수범하여 他的 龜鑑이 되고 있는 鐵原宗會와 信川公派春川宗會 그리고 光澤(안성), 玄根(대전), 載澈(서울)씨에게 표창패와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였으며 4세조 청성백 산소에 관상수를 식수해 주신 金錢祐(연천, 용달샘농원 대표)씨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금년에 회장단 임기가 만료되어 연장자인 宜洛 부회장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장단을 개선하였다. 청주중회 成輔회장이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추대한다는 마음으로 明求회장님을 다시 모시자'고 제안한데 이어 회장단 전원을 유임시키자고는 제안에 중인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를 모두 유임시키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2년간 대총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령 연장자인 魚澤 고문님의 만세삼창(명구회장님 만세, 대총회 만세, 대한민국 만세)을 끝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마치고, 갈비탕에 소주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가간의 돈독한 정을 확인하였다.

▶ 참석자: 198명

<선광문화재단> 장학사업의 현장을 가다...

2007년 4월 21일은 선광문화재단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증서를 수여하는 날이다.

인천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날의 장학금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 155명과 인솔교사, 내빈을 합하여 250여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회의는 심명구 재단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이 이루어 지는데 학생들이 장학증서를 받는 대목에서 회의분위기가 정점에 달했다.

선광장학재단은 재단이사장이신 심명구 회장님의 발의로 이루어 졌으며 그 첫 번째가 2003년 1기 장학생 64명으로 시작하였다. 각 분기마다 장학생과 장학금이 증가하여 2007년 5기에는 63개교 240명으로, 금액은 4억 2,24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기에 비해 인원이 약 400% 장학금도 400%로 확대되었다. 처음 설립할 때는 기본채산을 5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개월 후에 20억원으로 증자하였고 또 1년 후인 2003년 4월에 기본금을 40억원으로 증자하였다. 수치를 보면 5회까지 仁川, 파주를 합하여 총 897명에 지급된 장학금은 15억 3,666만 2000원에 이른다. 앞으로는 더욱 증자하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이사장 심명구회장

여 년 장학금이 5억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하니 재단 이사장님의 인성교육에 관한 열의가 어떠한지 짐작케 한다. 재단 설립자 심명구 이사장님은 仁川에 터를 잡고 평생을 사업으로 일군 재력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으며 파주시에 금년에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는데 파주는 이사장님의 14세조 영의정 만사공(晩沙公)을 비롯하여 여러 선조님의 묘소가 있는 까닭에 이 지역도 역시 위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기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 증서수여식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학교별로 자리를 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오손도손 식사하는 광경이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 -문화부-

<보훈의 달 특집>

매헌 윤봉길 의사(梅軒 尹奉吉 義士)

- ① 故國山川을 뒤로하고
- ② 생애 그날을 위하여
- ③ 金九와의 마지막 조찬



윤의사 체포장면

보훈의 달을 몇일 앞두고 禮山소재 "매헌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奉安한 忠義祠를 찾았다.

이곳 사당은 1968년 창건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하에 준공식과 윤 의사의 의거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어 1972년에는 사적 제229호 및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상, 충의문, 사적비, 어록탑 등을 건립하고 74년에 건립한 유물 전시관에는 문화재 보물 제568호(30종, 58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윤 의사 영정을 봉안한 사당에서는 윤 의사가 의거한 4월 29일을 기념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다.

면적이 147,802㎡로 조성된 충의사 영내로 들어서면 우선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거북좌대에 龍頭갓으로 10척은 되어 보이는 큰 비석이 하나 서있고 비석 전면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 사적비(梅軒尹奉吉義士史蹟

碑)」라 쓰여있다.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홍살문이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외삼문이 나오는데 외삼문 안으로 들어서면 그곳이 바로 윤 의사의 영정을 奉安한 사당이다. 뒤돌아 나오며 주차장 좌편에는 1972년에 건립했다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 면적이 427평에 이르고 기념관 우측으로 윤 의사의 어록탑이 서있다. 그곳에서 바로 나와 육교로 길을 건너면 윤 의사가 출생하여 4세까지 살았다는 광현당이 있고 광현당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저한당으로 이곳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 23세까지 살면서 독립운동의 싹을 키웠던 곳이다.

기념관에는 윤 의사의 출생과 성장과정이 소상히 기록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의거한 사적들이 기술 되어있다.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25세의 생애를 다 바친 윤봉길 의사의 성장기와 활동상을 여기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① 故國山川을 뒤로하고

윤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이곳 예산시 덕산면 신향리에서 태어났다. 이 때의 윤 의사의 가세는 몰락해 있었다. 조부(윤진영)는 아버지(윤황)를 데리고 당진에서 이곳 목바리로 이주하였다. 파평 윤관장군의 후예로 명문 이면서도 몰락하여 빈한(貧寒)한 농민이 되어 있었다. 윤 의사는 이곳에서 출생하여 11세되던 해에 보통학교에 들어갔으나 식민지교육에 식상하여 자퇴하고 서당으로 들어가 한학에만 열중하게 되었고 15세에 결혼한 윤 의사는 학문에 심취되어 날이 갈수록 식견이 높아졌으며 19세가 지나면서부터는 독립운동을 하는 흥성 유교부식회(儒敎扶殖會)와 敎友하고 유교를 통한 한학공부와 독립운동에 관한 것 등을 배운 것이 윤 의사가 의거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농민에게는 농민운동과 글을 깨우쳐 주기 위한 야학을 설치하고 스스로 교사가 되었으며, 공생운동, 협동운동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삶에 질과 상식의 길을 높이고자 철세없이 계몽운동을 하였다. 나아가 교사노릇을 하면서도 농민독본을 3면에계속...

하 계 수 련 대 회

2007년부터는 하계수련대회를 "전국도시 순회교육 실시"

2006년까지 23회를 지속하여온 청송에서의 하계수련대회는 매년 참석자가 감소하여 부득이 금년부터 수련대회를 지방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국도시를 순회하며 하루 일정으로 연수를 하게되면 전국 중인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기가 용이하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도 클 것으로 봅니다.

* 시청각 교재를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며, 시조산소를 비롯하여 4세조까지의 산소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연수교재는 뿌리교육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부터는 전국도시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수련회를 실시하되 연수일정은 각 지역중회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금년 2007년도 하계수련대회는 선착순으로 지역중회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월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대총회

편집하는 등 농촌부흥운동을 하였는데 이런 운동까지도 애국운동이라 하여 탄압을 받았으며 서당과 야학마저도 철폐하는 등 더 이상 국내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되었다. 이때에 광주학생 의거가 일어났다. 1929년 12월 5일 일어난 이 일은 일본 남학생이 조선여학생을 성희롱 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급기야 광주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참여하는 큰 싸움으로 커졌다. 왜경은 이 기회를 탄압의 기회로 삼고 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가리지 않고 살생을 해 광주시민들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보다못한 전국의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30만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항거하니 항일운동으로 변모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은 어디서 났는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항일구호를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정없이 살상하는 야만족들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는가?

분노와 적개심을 속으로 삼키면서 해산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민족을 바라보며 여기서 윤 의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되었다. 어차피 모든 운동이 저지당한 입장이 아니던가. 다음해 (1930년 : 23세)에 윤 의사는 부모와 고국산천을 등지고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서울을 거쳐 삼각산을 지나게 되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호송되어 가던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선생의 시가 문득 머리를 스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려 하것만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뚝말뚝 하여라

이 시를 읊조리니 청음 선생과는 시공만 다를 뿐 중국으로 가는 형편이나 망국의 비애는 같은 것이었다. 윤 의사도 달리는 차안에서 시 한 수를 읊으니

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나섰으니
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으리
그럴진대 어찌 뼈를 묻을 분묘지를 기대하겠는가.
인생 가는 곳마다 청산이 있는 것을.

이 詩야말로 고국강토에서의 마지막 남긴 말이 되었다. 중국 땅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청다오(靑島)였다. 중국 땅에 들어서니 마음이 설레이고 감개가 무량하였다. 이 곳이 바로 내 무덤이 있을 곳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청도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탁소 경리로 돈을 벌었다. 여기에서 번 돈으로 집을 떠날 때 차용한 돈을 갚고 나머지로 여비를 삼아 상해로 왔다. 어떻게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본거지를 찾아가야 그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차에 안공근이란 조선인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안공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자 김구선생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안공근은 형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사형집행전에 유작으로 남긴 詩 한 수를 들려준다.

동양 대세 아득하고 어둡구나
뜻 있는 장부 어찌 잠이 오는가.
평화로운 못 이루어 이맘 슬픈데
못된 계략 고치지 않으니 불쌍하고나

日 경찰은 이 시를 유작으로 받아주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윤 의사도 화답으로 한 수 읊으니

타 죽으나 물에 빠져 죽거나 모두 좋기에
시체가 어찌 東國으로 가겠나
삼천리 금수강산이 돌돌 말려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칠 곳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 윤 의사도 어느덧 혁명의 대열에 끼어있는 듯 하였다. 詩 한 수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혁명가의 자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안공근은 우선 자기가 소개해준 직장부터 그만두게 하였다. 이제는 호구지책을 위하여 공장 따위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윤 의사는 안공근과의 교우에서 일단 혁명 대열에 동참 할 수 있는 소지를 닦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백범 김구선생을 만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았다. 내가 앞으로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金九선생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구선생은 1876년 황해도 출신으로 본명은 昌壽요 아명은 昌巖이다. 당시 김창수는 일찍 東學에 入道하여 팔봉접주(八峰接主)가 되었고 東學軍의 선봉장이었는데 1894년 채령군에서 동학군이 궤멸 당하여 이때 김구는 그곳을 도망쳐 피신처를 찾던 중 구원을 요청 한 곳이 바로 안공근의 아버지 안태훈의 집이었다. 안태훈은 쫓기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부모까지 모셔다 봉양하도록 도와주니 그대에 안태훈의 아들 삼형제(安重根, 定根, 恭根)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 후 김창수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金龜:후에 다시 金九로)로 바꾸고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덧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직에 올라있었고 참으로 보기 드문 사상가요 애국지사가 되었다. 위와 같은 내력을 안공근으로 부터 들은 윤 의사는 전보다도 더 한층 김구선생을 존경하게 되었으며 안공근의 소개로 김구선생을 만나게 된 윤 의사는 가슴은 뛰고 이제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흥분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구선생은 윤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

백범일지(白凡逸志)는 윤 의사와의 처음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윤봉길군이 나를 찾아왔다.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 체소장사를 하며 홍구공원을 몇 번씩이나 찾았으나 죽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탄하던 중 나를 만났다 하였다. 그리고 윤봉길은 동경 사건 같은 큰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마침 그런 인물을 구하던 중이라 하고 4월 29일 왜놈들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한다고 하니 한번 큰 일을 해 봄이 어떠냐하고 그 계획을 말하니 윤군은 하겠습니까 하고 기꺼이 승낙하였다. 윤 의사는 김구주석이 독립 정신이 투철하고 임시정부 주석이란 것만으로도 자기 몸을 충분히 맡길 만 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終 -
다음호에 계속...

기녀 일타홍(妓女一朶紅)의 지혜

① 일타홍, 심희수(喜壽)와의 첫만남

명문가의 저택답게 소슬 대문이 흰칠하고 육간대청의 안채가 우람한데 집안 구석구석이 손을 보지않어 퇴락할 대로 퇴락하여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

안채에서는 60대는 되어 보이는 노마님과 애편 얼굴에 이쁘장한 한 여인이 노마님과 마주하고 앉아 있다. 수심이 가득 차 보이는 노마님은 심희수의 어머니이고 젊은 여인은 심희수의 일로 노마님을 찾아온 여인으로 시골서 한양으로 갓 올라온 기녀 일타홍이다. 이렇게 심희수 일로 두 여인이 한자리에 앉아 의논하게된 연유는 대개 이러하다.

새싹들이 과룻과룻 솟아나는 늦은 봄 어느 날, 서대문 밖 진관사(津寬寺)에서는 권신(權臣) 7~8명이 시회(詩會)를 열고 한가로이 주연(酒宴)을 즐기고 있었다. 한참 흥을 돋우고 있을 때 느닷없이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나타나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하며 자리를 함께 하자고 억지를 부리니 노객들은 한결같이 불쾌해 하였다. 이날의 연회에 주인 격인 권대감은 심희수의 무례한 짓을 나물하며 호통을 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노객중 한 명이 심총각이 개국공신 청성백(靑城伯) 후손이란 것을 알고 여러 노객에게 소개하며 노기를 풀게 하니 노객들은 깜짝 놀라며「그럼 얼마 전에 타계하신 정승 심연원(沈連源)공과 한 집안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청성백 아들 안효공과 손자 공숙공까지 3대정승을 하시고 얼마 전에 타계하신 심연원 정승도 弟氏되는 통원(通源)공과 함께 兄弟정승이 아니오니까. 이 총각은 심연원 대감의 제씨(弟氏)되는 동지돈녕(同知敦寧) 봉원공(逢源公)의 손자입니다.」하니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내심으로 크게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총각의 아버지 심건(沈鍵)공은 대과급제하고 2년만에 타계하는 바람에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로 끝났으나, 권 대감과는 동문수학을 한 사람으로 그때부터 이미 나라의 큰 재목감으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때 좌중에 한 재상이 말을 했다.

「돈녕을 지내신 효창(曉窓)公이라면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의 손주가 작년에 진사시(進士試)에 나가 합격하였다고 들었습니다만...」그러자 또 한 사람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넘도록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벼슬에는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조금은 빈정대는 듯한 어조였다. 이 일들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이가 바로 이날 연회에 참석한 5, 6명의 기생중에 낀 일타홍이란 기녀였다. 일타홍은 나이는 18세로 어리나 용모가 예쁘고 수려한데다. 시문(詩文)과 가무(歌舞)에도 능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상학(相學)이 출중하다는 점이다. 한번 관상을 보면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이름난 관상가(觀相家)였다.

심총각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던 거기엔 개의치 않고 좌중을 한번 쭉 살펴보고는 일타홍의 옆에 와서 앉으며,



「둘러보니 좌중에서 네가 제일로 미색이로다. 이름이 무엇이나?」

「일타홍이라 하옵니다」

「아!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그 일타홍 이더냐? 과연 듯던바 대로 미색이로다. 여기 술 한잔 따르거라」일타홍은 술을 따르며 심총각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골돌히 생각한다. 아무리 뜯어봐도 범상한 상이 아니다. 그와 같이 뛰어난 골상(骨相)을 가지고 왜 더벅머리 한양(閑良)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연회석에선 아무리 대가집 후손이라고는 하나 난데없이 더벅머리 한량이 뛰어들어 술 동냥하는 것도 모자라 기생에게까지 치근대는 행동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들이다.

4면에 계속...

일타홍은 짐짓 소피를 보겠다고 나오면서 심총각을 꼭 질러 따라 나오게 하였다. 밖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노라니 심총각이 나오며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 말하기를

「나는 너한테 첫눈에 반해버렸느니라」고 하며 지금부터 아예 나하고 너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일타홍이 지금은 못 간다고 하자

「왜 내가 싫어서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지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연회가 끝나면 도련님 맥을 찾아 갈 것이오니 도련님 맥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우리 집은 계동이다. 계동 골목에 들어서서 심송지택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느니라 틀림없이 찾아오기는 하겠지?」

「그렇지 않아도 도련님을 만나 뵙고 드릴말씀이 있어오니 집에서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오히려 일타홍이 다짐을 받는 것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일타홍은 가르쳐 준대로 심총각의 집을 찾아갔다. 아주 큰 저택이다. 문고리를 두어 번 두드리니 기다리고 있었는지 심총각이 불이나케 나와 대문을 열어주며

「아 네가 왔구나 많이 기다렸느니라」하며 손목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일타홍은 끄는 대로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위엄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련님께 잠자리나 하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관상을 보면 공부만 잘 하시면 크게 되실 분이시며 더군다나 개국공신 청성백의 후예라니 더욱 더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몰락한 가문을 세울 생각은 아니하시고 벌써부터 부녀자나 희롱하고 다니시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준엄하게 충고를 하니 심총각은 자신의 처지를 반성이라도 하는듯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니

「그러면 나 같은 놈이 이제라도 공부를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이더냐?」 일타홍은 말했다.

「남아대장부가 한번 마음먹으면 안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도련님은 작년에 진사시에 까지 합격하신 분이 아니시옵니까?」하니 한참 듣고있던 심총각은 그래도 일타홍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공부를 하면 너하고는 어찌 되는 것이냐?」

「만약 도련님께서 공부를 결심만 하신다면 소첩은 오늘이라도 기적을 버리고 도련님 맥에 들어와 도련님을 돕기 위해 심부름꾼 노릇이라도 하겠어옵니다」 심총각은 일타홍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소첩이 이 가문에 들어오려면 노마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옵니다」 심총각은 일타홍의 요구대로 그렇

게 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뵙기 위해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일타홍은 한사코 혼자 가겠다고 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노마님과 일타홍이 마주하게 된 것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노마님은 아들의 일로 수심이 가득차 보였다. 세 살 때 부친을 잃고 극진히 정성을 들여 양육하였건만 장남이란자가 어찌하여 떠꺼머리 한량이 되었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타홍은 노마님께 깎듯이 인사를 하고 기생의 몸이란 것을 밝혔다. 일타홍이 기생이란 말에 노마님은 깜짝 놀라더니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었다. 주색잡기에 밤낮이 없는 망나니가 이제는 기생을 집에까지 끌어 들였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는 것이었다. 일타홍은 묵묵히 앉아 노마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렸다가 공손히 말을 이어갔다.

「소인네는 비록 기녀의 몸이기는 하오나 돈을 바라고 도련님을 따라 온 것은 아닙니다 만일 소인이 재물을 탐내었다면 어찌 가난한 떠꺼머리 총각을 따라왔겠나이까?」

「그렇다면 네가 어찌자고 우리 아이를 따라서 집에까지 왔느냐?」 일타홍은 여기까지 오게된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가 상학(相學)을 배워 관상을 좀 볼 줄 아옵니다. 도련님의 관상을 보니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난처한 일이옵니다. 그러나 방탕생활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착실히 하여야 하는데 공부를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즉 어떤 방책으로든 제가 오른 길로 잘 인도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면 노마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허락만 하여주신다면 소인네는 오늘이라도 기적에서 완전히 몸을 씻고 이 맥에 들어와 도련님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노마님은 천하에 몸쓸 망나니를 바로잡겠다니 반가운 말이기도 하나 과연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가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집 형편도 그리 넉넉지 못한 처지에 어떻게 견디겠느냐?」

「소첩이 호강하려 오는 것이 아니옵고 도련님 한 분 잘 모시고자 오는 것이오니 캐념치 마시옵소서, 다만 마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노마님은 아들을 잘되게 인도하겠다는 말에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일타홍의 말에 귀를 기울리게 되었다.

「그래 무슨 말이든 어서 해 보거라」

「소인네가 도련님을 모시는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거나 간섭하지 마시옵고 모든 것을 소인네에게 맡겨 주시기 바라옵니다」



「내가 못나서 아들을 그런 꼴로 만들었거늘 무슨 간섭을 하겠느냐. 그저 사람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니 부디 두 손 모아 부탁하마」하면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부탁하니 일타홍도 또한 눈물이 나와 한 동안 서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하여 노마님의 쾌락을 받은 일타홍은 심총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문화부 - 88 -
< 다음호에 계속... >

青松沈氏水原地域宗會 任員改選

顧問: 宜中 現澤 載德 正鎮 相龍 彥植
會長: 鳳鎮
副會長: 相國 載洙 相億 完燮 相敦 載鎬
監事: 文鎮 雲鎮
總務: 相稷 (이문동)
理事: 光섭 均섭 무섭 상섭 상용 상찬 상혁 순진 언훈
응기 은범 웅식 진섭 기섭 경근 근근 만진 범진
성근 언계 언구 언길 언협 언혁 언형 언희 예진
옥진 은진 재청 형근 황진 정식 현보 만진 상용
언성 상열 상철 상근 은섭 은복 은철 영섭 대섭
재현 상학 재인 자섭 상식 언호 보섭 태섭 상의
상우 경섭 문주 재우 국진 상우 상복 언선 민훈
명옥 상직 재봉 영구 은근 정진 상근 영주 재수
진섭 언호 흥진 언창 준섭 형진 선진 상관 경섭

青松沈氏谷城宗會 任員改選

顧問: 丁求 相祐 鍾泰 相洛 相復 相峻 相洙 元植
名譽會長: 鎮植
會長: 愚慶
常任副會長: 正植
副會長: 學燮 駿燮 判求 海燮 宗植
指導委員: 君澤 相大 相殷 賢求 元燮 綱燮 泰燮 又燮
湧燮 弘燮 宗求 亮燮 政煜 義植 文植 載萬
鍾燮 永燮 鉉植 洪植 愚烈 愚英 愚仁 愚仁
愚燮 愚哲
監事: 載現 淵植
幹事: 起榮 載述
總務理事: 珍燮
理事: 周澤 永澤 相台 相培 相允 相來 相溫 冠先
斗燮 判求 禹燮 明燮 寬燮 南燮 學村 禹燮
奎燮 道潤 洪燮 滿燮 忠燮 洪燮 成求 雲植
載炫 銀植 沈紅 載萬 圭植 載千 文植 漢植
載菡 源植 洪植 載奉 丙植 載源 喜權 練植
國植 泰植 京求 仁玉 明贊 鍾植 愚一 愚烈
愚全 愚珍 愚錠 愚根 愚勳 愚大 愚烈 愚天
冕求 享植 賢燮 愚萬 判燮 仁燮 載峰 永求
鍾培 在植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諱:洪孚)春享奉行

4월 6일(寒食節)



▶ 始祖山所 初獻官 敏燮



▶ 中臺山山所 獻官 相夏(鐵原)

始祖 妣位
 初獻:敏燮 亞獻:根植 終獻:能琪
 大祝:華燮 執禮:琬澤 執事:相海 相燻 相國 田澤 宜珽

▶ 祭享獻誠金
 蔚山內禁衛公:200,000 鐵原宗會:100,000
 都摠制公宗會:200,000 清州宗會:100,000

二世祖 閣門祇候公(諱:淵)春享奉行

4월 27일(음:3월11일)



二世祖 妣位
 初獻:相泳 亞獻:贊求 終獻:學燮
 大祝:玄根 執禮:佶燮 執事:亮燮 仁燮 昌燮 暎術 載澈

▶ 祭享獻誠金 承澤(禮山宗會長):300,000
 全北青松會:100,000 原州·橫城宗中:200,000
 學燮(여수):1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100,000

三世祖 青華府院君(諱:龍)春享奉行

4월 29일(음:3월13일)



三世祖 妣位(도기동)
 初獻:庚周 亞獻:鍾燮 終獻:源澤
 大祝:光澤 執禮:相稷 執事:相億 相旭 英燮 載澈

▶ 祭享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承澤(예산중회장):300,000
 蔚山內禁衛公:200,000 清州宗會:100,000
 都摠制公宗會:100,000 青松宗會:100,000
 奎澤(남가좌):100,000 영보(龍仁):30,000

四世祖 青城伯(諱:德符)春享奉行

5월 1일(음:3월15일)



四世祖 妣位
 初獻:贊求 亞獻:敏燮 終獻:炅燮
 大祝:相直 執禮:相稷 執事:載求 載澈

▶ 祭享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春川宗會:100,000
 都摠制公宗會:100,000 醴泉宗會:100,000
 蔚山內禁衛公:200,000 咸安清安宗會:100,000
 信川公派春川宗會:100,000 贊求(副會長):100,000

四世祖 妣(清州宋氏)春享奉行

5월 3일(음:3월17일)



▶ 四世祖 初配位(清州宋氏)



▶ 五世祖 都摠制公

清州宋氏 都摠制公
 初獻:敏燮 亞獻:載龍 終獻:昌燮
 大祝:相直 執禮:相稷 執事:相中 相基 載澈

▶ 祭享獻誠金 安孝公宗會:300,000
 都摠制公宗會:200,000 奎澤(남가좌동):100,000

五世祖 安孝公(諱:溫)寒食節祀奉行

4월 6일(寒食節)



初獻:庚周 亞獻:良燮 終獻:載國
 大祝:光澤 執禮:相稷 執事:應鎮 彥村 相億 載玉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春享奉行

4월 30일(음:3월14일)



初獻:庚周 亞獻:相龍 終獻:彥植
 大祝:光澤 執禮:相稷 執事:相旭 彥村 英燮 載澈

▶ 祭享獻誠金 周燮(光明):50,000

四世祖 岳隱公(諱:元符)春享奉行

5월 11일(음:3월25일)



岳隱公 令同正公 石川公
 初獻:榮燮 榮燮 榮燮
 亞獻:宇永 鍾赫 成五 蓮澤 相伯
 終獻:揆範 相錦 揆聖 載卓 相喆
 大祝:東燮 奎澤 相本
 執禮:華燮 相九 相九
 執事:載洪 弘燮 相培 相國 相海 相燻 吉澤 相哲 鳳燮

六世祖 良惠公(諱:石雋)春享奉行

5월 6일(음:3월20일)



良惠公 妣位 滄州公
 初獻:晶求 贊求 璋燮
 亞獻:相華 鍾默 榮燮
 終獻:哲植 相大 仁燮
 大祝:德求 執禮:載晁 執事:載求 鍾赫

▶ 祭享獻誠金 鍾默(군산):50,000 한구(전주):50,000

世宗大王 忌辰祭奉行

4월 8일(毎年)



亞獻官: 容圭
參班員: 載澈 愚夏 左輔 仁輔. 城南宗會7名

淑容沈氏 祭享奉行

4월(셋째 日曜日)



亞獻官: 昌燮(김포)
參班員: 相稷 仁求 洪燮 昌燮(仁川) 載烈 容圭 載澈 外4명

仁順王后 祭享奉行

4월 22일(넷째 日曜日)



亞獻官: 載澈
參班員: 斗燮 相稷 浩澤 洪택 奎澤 상경 相弘 昌燮 外11명

昭憲王后 忌辰祭奉行

4월 28일(毎年)



亞獻官: 載求
參班員: 載澈 昌燮 仁輔 水原(버스1대 35명) 金浦(4명)

谷城宗會 定期總會 開催



2007년 5월 2일(陰3월16일) 오전 10시 30분 龜巖祠에 모신 忘世亭公 霽湖亭公 杜菴公 龜巖公 四賢先生의 享祀가 봉행되었다. 초헌관 李炳根, 아헌관 金杜洙, 종헌관 吳翼星, 집례 李宗南, 축 金長洙, 집사 丁鍾一의 제 집사들로 구성되어 향사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중식이 끝난 13시에 제31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유공자(許基夏 도의원, 沈鳳植 고문)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이 수여되었으며, 沈鎮植 종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駿燮 총무이사의 2006년도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載現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도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임원개선에 들어가서 임기가 끝난 鎮植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위임받아서 종원들로 부터 차기 종회장 인물을 구두로 호천받아 만장한 일가분들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愚慶씨를 靑松沈氏谷城宗會長으로 추대하였다.

宗廟大祭 奉行 5월 6일



▶ 正殿 第三室(세종대왕, 소헌왕후) 亞獻官: 忠燮



▶ 永寧殿 第十一室(명종대왕, 인순왕후) 亞獻官: 相弘

종묘(宗廟)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궁궐의 동쪽에 종묘를 건립하고 서쪽에 사직단을 세웠다. 현재의 종묘는 정전과 영녕전으로 되어 있는데, 종묘는 원래 정전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정전(正殿) 건물은 태조 3년(1394)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고, 영녕전(永寧殿)은 世宗 3년(1421)에 완공되었다. 정전과 영녕전은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광해군 즉위(1608)에 재건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적 제125호인 종묘는 뛰어난 건축적 가치와 600여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제례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七世祖 忘世亭公(諱:璿) 春享奉行

5월 9일(음: 3월23일)



忘世亭公 妣位
初獻: 晶求 贊求
亞獻: 根植 大植
終獻: 相大 升求
大祝: 德求 執禮: 載冕 執事: 載求 鍾赫
▶ 祭享獻誠金
蔚山內禁衛宗會: 2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200,000

益山宗會 一日紀行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익산종회에서는 2/4분기 이사회를 하루 소풍 겸 여행으로 대신했다. 지난 3월 5일 1/4분기 이사회 겸 정기총회에서 다음 2/4분기 이사회는 야외에서 하되 행선지는 목포로 결정을 보았다.

드디어 D-day, 4월 13일 자정이후부터 강한 비바람에 설상가상으로 천동번개까지 동반하여 택일을 잘 못했으나 순간적으로 심란했다. 그러나 아침 6시 일기예보에 남부지방은 오전 중 소강상태에서 오후엔 맑겠다고 하기에 안도감이 들었다.

출발 집결장소는 익산역, 임원 중 유고로 인한 불참 2인 이외는 전원 동참하였다. 혹시나 부회장 載桓씨는 그간 몸이 불편하여 동참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건강도 좋아져 참석해 주니 너무나 반갑고 한편 고맙았다. 그리고 감사 相國씨는 '06.10월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에 몇 군데 골절상을 입어 6개월간 기브스를 하고 있었는데

도 크러치에 의지하고 참석해주어 그 강인한 정신과 의지에 감동치 않을 수 없었다.

7시 45분 익산역을 출발하여 차창밖을 내다보니 산야가 주마간산식에 비유하면 명색이 무궁화호라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분이다. 야생백화들은 앞을 다투어 개화된 자태를 서로 뽐내고 대자연은 5월이 되면 산야가 싱그러운 녹음의 물결로 변화할 것이다.

한국은 지형과 지리적면에 있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중·남부지방의 근대 발전상이 이태리의 로마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남부지방의 발전상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피루로 실감케 했다.

10시 2분 드디어 종착역인 목포에 도착, 목포에 오면 유달산을 탐방치 않을 수 없다. 도보로 관문인 노적봉을 거쳐 새천년 시민의 중, 그 위에 위치한 바위에 올라가 사방을 관망한즉 구름과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아 전망이 잘 보이지 않아 하산하여 휴식을 취한 후 정오 전에 목적지인 북항 회-센터로 직행했다. 북항의 매력은 도로를 활기차게 만드는 회 타운 풍경이다. 싱싱한 횡감들을 보며 가격을 흥정하는 상인들과 관광객들의 풍경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목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어 점심까지 겸했다.

식사 후 내항 해안지대를 산책하다 내항 관광안내소를 거쳐 목포의 주요 관광지인 박물관, 전시관, 교육관 등 가볼만한 곳이 많은데 임원들께서 그간 수차에 걸쳐 관람했으니 좀 아껴 두었다. 다음 기회에 들리자 하여 목포역으로 직행했다. 호남의 종착역인지라 오르내리는 여객들이 의자를 다-차지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대합실에서 약 50분간 발차시간(16시 5분)을 기다리다 출발 10분전에 승차하여 차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열차는 18시 24분 익산역에 도착하였다.

회장님께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자고 하시어 역전 인근 식당에 들러 소주 한잔을 곁들여 식사를 마치고 오늘 좋은 하루 심기일전 유쾌한 기분으로 무사히 여행을 마친데 대하여 임원 모두가 즐거웠다고 하면서, 다음 3/4 분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익산종회 총무 佶燮 제공

강좌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부회장 심갑보

가격전쟁시대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이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시내 어느 백화점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외제 N사 신발매장 앞에서 신발 하나를 골라 들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신발의 가격표를 보니 30만원이나 되는 고가였다. 아버지는 동대문시장에 가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보통 신발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아들을 설득했으나 아들은 막무가내였다. 다른 친구들은 다 N사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기만 신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인은 무리인줄 알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신발을 사주었다. 이 경우의 가격경쟁력은 무엇인가. 단연 브랜드력이다. 그 브랜드에 포함된 품질과 디자인 및 지명도는 그 다음이다.

위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브랜드력과 품질·영양가·성능·안전성·내구성·회귀성·디자인·지명도·납기 등 여러

상이한 요소들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그 일부 또는 대부분을 고루 갖추고 있지 않으면 타사의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앞설 수 없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경쟁력이란 고객에게 보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다. 그런데 최근 가격과괴가 시장 재편의 화두가 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특수한 제품은 별개이지만 일반 공산품의 경우는 우선 제품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들 수 있다. 제품의 제조기술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소비자들은 수준 이하의 제품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첫째로 제조원가를 대폭 낮추는 방법이다. 원?부자재를 경쟁업체보다 월등히 싸값으로 구매하든지, 탁월한 생산기술과 자동화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줄여 단위당 생산원가를 대폭 낮추는 일이다. 둘째는 기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바꾸는 것이다. 직접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델(Dell) 컴퓨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델 사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은 유통방식 채택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낮은 재고 부담 등으로 경쟁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부품·제조·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저의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간접비용을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산품의 경우 직접생산비와 판매

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부문이 여기에 속한다. 인사·총무·경리·구매·기획부서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되는데 선진국 선발기업의 경우는 이들 부서업무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있는 사례가 많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수입도 같음) A회사는 생산원가에 15%의 간접비용(일반관리비)이 들어가고 B회사의 경우 30%의 간접비가 소요된다면 가격경쟁력은 A회사가 앞설 수밖에 없다. B회사의 경우 간접비를 줄이지 않으면 현재 브랜드력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경쟁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중국의 저가격 공세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다. 또 정보화의 영향 탓으로 소비자들은 많은 공급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몰린다. 다양한 가격비교 사이트의 등장, 소비자 정보, 커뮤니티 등의 덕택으로 가격의 투명화가 이루어져 있다. 에누리닷컴 등이 방대한 제품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차선의 제품이 선택될 여지를 없애고 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나 화장품·귀금속·고급의류 등은 브랜드력이나 디자인 및 생산기업의 지명도와 그 제품(상품)이 가진 감성 등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원·부자재나 기계요소부품의 경우엔 그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기 마련이고 우수한 판매력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사 제품을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주력하는 것이 경영자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 끝 >

“불안정한 플루토늄” 보관법 31세 재미과학자가 찾았다

포스텍출신 심지훈 박사(淸州 載福氏의 二子)



심지훈 박사

핵발전소나 핵폭탄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물리적 성질의 비밀을 31세의 재미 과학자가 처음으로 풀었다. 미국 럿거스대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지훈 박사는 3월 29일 “플루토늄이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원인이 원자핵 주변을 도는 최외곽 전자의 요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심 박사는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플루토늄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박사의 이번 연구는 과학적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의 과학저널인 ‘네이처’ 3월 29일자에 실렸다. 연구를 주도한 심 박사는 포스텍(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다.

심 박사가 주도한 연구팀은 ‘동역학적 평균장’이란 이론에서 비밀의 실마리를 찾았다. 입자 간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이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플루토늄 원자핵 주변을 도는 최외곽 전자의 요동이 물성을 바꾼다는 사실을 밝혀 낸 것이다.

3. 29일 동아일보

靑松沈氏 固城郡宗親會

지난4월 7일 제17회 청송심씨 종친회정기총회 및 제8회 노인공경위원회가 청송심씨 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임원개선)

노인공경위로 축제행사로는 팔순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기념품 증정이 있었고, 여자 60세 이상은 투호경기, 남자 70세 이상의 병 고기 낚기, 여자 40세 이상은 홀라후프 돌이기, 남자 40세 이상은 허리 줄 당기기를 자기의 힘과 기능을 발휘하여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점심시간 후에는 제2부 행사에는 남녀 마을별 노래자랑 등의 게임을 즐기면서 일가간의 친목을 다졌다.

靑松沈氏 光州金堂山宗會

任員改選

- 常任顧問 相琦
- 副會長 相八
- 總務長 憲燮 孝燮 炳燮 在均
- 理事 潤燮 在九 逸九
- 監事 (通正) 亨善
- 理事 (松岩) 夢燮 淳燮 在倫
- 理事 (碧岩) 榮烈 淳燮
- 理事 (斗岩) 東燮 鶴燮

靑松沈氏 安東宗親會

任員改選

- 顧問 의식 정문 귀호 규범
- 副會長 재덕
- 總務長 문웅 상동 상완
- 理事 범섭 규범
- 理事 재욱 규수
- 監事 양무 점암 음한 연이 증보 규영 동섭
- 事務 중덕 호섭 길준 순성

靑松沈氏 全北宗會

任員改選

- 顧問 成澤 宜杓 載明
- 名譽會長 宜斗
- 副會長 相泳
- 總務長 載政 相坤 柱燮 相萬 乙輔
- 理事 信燮 安輔
- 財務理事 在日
- 理事 斗燮

- (全州·完州) 萬五 宜喆 海洙 鍾根
- 相玉 秀一 相善 相相 根湧 燮珉
- 正秀 哲植 炳基 秀永 尙道 (群山·金黃堤)
- 鍾·命求 判迷 載音 載南 (益山) 相泳
- 相國 仁求 裕燮 昌燮 亮燮 善求 映術
- (井·高·扶) 東準 相貴 相重 相哲 昌燮
- 載五 炳斗 井喆 載奎 (任·淳·南) 相顯
- 相吉 在贊 成燮 載喆 載學 沈敏 愚喆
- (茂·鎭·長) 乙輔

靑松沈氏 固城郡宗親會

任員改選

- 顧問 應燮 泰燮 載渭
- 副會長 鎭奎 鎭杓
- 總務長 載華 鎭杓
- 理事 載相 相祐
- 理事 淳燮 永輔
- 理事 淳實 秀輔 仁輔 載元 文燮 桓基 英一
- 種子 輔烈 丁伊 輔慶 成輔 有山
- 外逃 正市 載浩
- 運營委員 載浩

人事

이영: 공용감독원 조사2국장
 廷勳: 현대증권 부평팀장
 承鎭: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역 본부장
 용구: 현대해상화재보험 인천지점장
 廷憲: 대한생명 법인1사업부 부장
 정욱: 한화증권 르레상스지점장
 광숙: 고려대 교무부총장
 載燁: 메즈리증권 리서치센터 본사차장
 相大: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相熙: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성과관리팀
 규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사팀장
 英甫: 하이닉스반도체임원 상무보
 錫南: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부장

祝

금탑산업훈장 수훈

심갑보(沈甲輔) 부회장

심갑보 삼익THK(주) 대표이사부회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스승의 날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심영자 (금곡종합고 교사)

소장하고 있던 族譜 및 派譜를 기증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성구(水原) 宗親

庚申譜(複寫本) 6卷

都正公派譜 3卷

靑松沈氏 顯祖遺蹟寫眞寶鑑 1卷

一燮(仁川) 宗親

庚申譜(原本) 27卷

訃告

沈容圭(大宗會理事)

父親께서 4월 21일 老患으로 別世(97歲)

嗣子: 容圭 三圭 復圭 白圭

딸: 玉圭 淑圭

沈璣求(宗人)

5월 19일 인천 老患으로 別世(79세)

嗣子: 榮吉 正吉

딸: 美玉 彦希

애국지사 沈勳 선생 별세

항일 애국지사 심훈(沈勳) 선생 4월 2일

노환으로 별세(79세)

고인은 1929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1943년부터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의 단원으로 항일 독립운동과 거사를 추진하던 중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광복과 함께 출옥했다.

嗣子: 載哲

딸: 玲 貞娥 玟 庚 廷 恩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권석	50,000	망원동
호석	50,000	망원동
태식	30,000	堤川
우섭	30,000	江華
민섭	30,000	장위동
영택	50,000	우이동
완섭	50,000	華城
택만	50,000	신문로
石輔	50,000	金浦
재구	30,000	城南
원택	20,000	原州
상덕	30,000	흑석동
덕섭	50,000	김포(법무사)
固城郡宗親會	100,000	
載德	30,000	비산동(삼호A)
敎燮	50,000	大邱
載德	100,000	安東宗會長
安東宗會	100,000	
允燮	50,000	답십리
晉州宗會	100,000	
愚慶	50,000	光州
安孝公宗會	3,000,000	(중보간행지원금)
의보	30,000	尙州
賢錫	50,000	大邱
鍾默	30,000	群山
鳳鎭	200,000	水原地域宗會長
우만	30,000	천호동
載萬	200,000	불광동
능봉	30,000	東海
載警	50,000	仁川
全北宗會	100,000	
영섭	50,000	富平
남섭	30,000	金浦
재룡	30,000	金浦
倭燮	100,000	益山

總會贊助

예산중회장 承澤	300,000
高尺宗會	100,000
宣武功臣宗會	100,000
南 서울宗會	100,000
相福(신림동)	5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大邱宗會	100,000
晉州宗會	100,000
魚澤(서울)	50,000
봉섭(군포)	30,000
相弘(김포)	50,000
우영(하남)	30,000
성주·고령중회	100,000
谷山公宗會	100,000
夷敬公宗會	100,000
상근(전주 완주)	50,000
谷城宗會	100,000
載殷(강릉)	30,000
鐵原宗會	100,000
우관(동두천)	2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吉燮(창원정민공중회)	100,000
만중중회	300,000
상학(만중중회장)	200,000
일섭(대전)	50,000
載德(안동)	100,000
金泉宗會	50,000
重植(안성)	50,000
재국(봉화)	50,000
春川信川公宗會	100,000

任員會費

鼎澤	50,000	2007	靑松
源澤	50,000	2007	靑松
相國	50,000	2007	靑松
載榮	50,000	2007	釜山
相均	100,000	2006~7	釜山
鍾赫	50,000	2007	大宗會
種福	50,000	2007	大宗會
江水	50,000	2007	仁川
上銀	50,000	2007	응암동
亨求	50,000	2007	화곡동
信求	50,000	2007	光州
星求	50,000	2007	구기동
相殷	300,000	2007	副會長
烜燮	50,000	2007	大邱
護雄	50,000	2007	大邱
愚慶	50,000	2007	光州
政燮	50,000	2007	安城
一用	100,000	2006~7	安城
載殷	50,000	2007	江陵
龍澤	50,000	2007	城南
泳淳	50,000	2007	城南
相高	50,000	2007	鎭川
宜石	50,000	2007	金泉
吉燮	100,000	2006~7	昌原
贊求	300,000	2007	副會長
仲燮	50,000	2007	扶餘
載烈	50,000	2007	大宗會
載浩	50,000	2007	安東
仁求	50,000	2007	果川
賢錫	50,000	2007	大邱
相八	50,000	2007	光州
石竣	50,000	2007	光州
憲燮	50,000	2007	光州
永澤	50,000	2007	一山
仁求	50,000	2007	益山
相祐	50,000	2007	春川
東燮	50,000	2007	春川
鍾默	50,000	2007	群山
相鶴	50,000	2007	중평
載警	50,000	2007	仁川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 농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전화: (02)2267-7857

* 5처산소 유사 연락처 *

世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	청 송	相 國 源 澤	011-554-1313 011-9355-3608
2세조	합문지후	함 열	璿 燮	011-676-0892
3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庚 周	011-9801-4815
4세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